

인터넷 지상법석

“소유욕과 행복은 반비례”

사람들에게 인생을 물으면 그 대답이란 게 모두 비슷할 것입니다. 그 대답이란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구름과 같이 공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개개인이 마음을 열고 진정 진실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런 공작함은 말끔히 사라질 것 같다'라며 공작한 자신의 형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같이 꾸밈을 한다고 해서 과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공작함이 사라지겠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삶이란 무엇이고, 올바른 삶이 왜 불법에 귀결되는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불가에서 말하길 우리는 똑같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달리 태어나 다른 삶을 살고 또한 다르게 죽는 것입니다. 윤회의 법칙은 우리를 부유하고 고결하게 또는 가난하고 미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지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흔한 사회를 가리켜 풀잎같이 돌아가는 바위와 흡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며 무엇인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생산물을 소유하여 소위 행복감을 맛봅니다. 그러나 이 행복감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끝도없는 소유욕은 예전에 느낀 행복감을 감소시키거나 미련이거든요. 아마도 부처님이 대

구날아타나
美 비활불교회 초대회장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을 하는 인류가 부처님 시대보다 더 많은 삼독을 대해야 하는 이유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본질을 배우지 못하고 단지 죽어버린 활자에 얽매어, 그 의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교는 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무는 뿌리, 줄기, 잎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나무, 부드러운 나무, 열매가 맺히는 나무, 잎이 넓은 나무 등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예를 들어 나무의 뿌리 혹은 열매 맺히는 나무 등을 얻고자 하면 그것을 지키고 키우며 기다려야 합니다. 불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그냥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진리로 다가가는 고독한 행진이고 장엄한 투쟁이고 고결한 여행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 씌이고 열매가 맺길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세로 자신의 진

약 력

· 스리랑카에서 불교에 귀의해 7년동안 공부했다. 1964년 인도로 건너가 수행에 전념하다가 1968년 미국으로 건너가 '비활 불교회'를 창립, 약 20여년동안 위신문을 중심으로 미국내 불교포교운동에 매진했다. 또한 미국대학으로부터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 <지혜로운 명상> 등.

“삼독은 삶을 힘들게하지만 불성은 삶을 밝혀줘”

하셨을 때 만연된 삼독(三毒)에 비하면 오늘날 그것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혹자는 자신이 소유한 게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삼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삼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밝혀줄 불성 역시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나는 불성을 '열린 마음'으로 쉽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령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셔터를 누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눈을 크게 뜨고 호흡을 가다듬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말없이 피사체를 응시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아 셔터를 누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백색의 큰 화폭과 맞서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모르긴해도 무엇을 그려야 할지 찝찝한 경우는 허다 할 것입니다. 설혹 대

“진리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꾸듯 수행해야죠”

삼독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 계획을 가지고 화폭에 담으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쥐고 있는 붓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아무것도 그리지 못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실 밖의 것을 찍고 그리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란 바로 대상을 잘못 판단하게 하며 망상에 빠지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불성이 우리의 직관을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열린마음은 진리의 형상만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모든 것을 제대로 그리고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서원을 세웠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의 삶을 직시하는 순간부터 실망감에 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도 분명히 이러한 고민에 빠져 "어떻게 해야 대중들에게 불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지한 대중들을 깨달음의 경지로까지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사부대중의 고통을 벗겨주기 위해 진리의 법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한 개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 계층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고등에 고등만 안겨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 그러니까 진리를 체득하지 못한 모든 생명을 위한 법을 설하신 겁니다. 나는 이것을 대중성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중성'을 세속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문

리를 기다리는 수행자세를 가져야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무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나무와 같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접하는 모든 것에는 필연적으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불법(佛法) 주위에도 수많은 존재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금강식은 시장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진리는 항상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금을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핀가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솟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그것을 소유하게 하기는 커녕 마음에 고통만 안겨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는 집착이 없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소유하겠다는 집착마저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어 아니고 하나 인 그것을 공이라 부르고 공이 그대로 색이요 색이 그대로 공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설명만으로 사리불이 공을 체득했을까? 없다. 사리불로 대표되는 보통사람들은 말로 차근차근 설명해야 알아 듣기 때문에 하나 하나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첫 마디가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인데 온통 부정하는 말 '부(不)'자를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물리학자들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그 이유를 찾았지만 아무튼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다. 왜 심경에서 '부(不)'자를 반복하여 공을 설명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물리현상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지난번에 법칙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물체가 어떤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물이 아니고 하나 인 그것을 공이라 부르고 공이 그대로 색이요 색이 그대로 공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설명만으로 사리불이 공을 체득했을까? 없다. 사리불로 대표되는 보통사람들은 말로 차근차근 설명해야 알아 듣기 때문에 하나 하나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첫 마디가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인데 온통 부정하는 말 '부(不)'자를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물리학자들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그 이유를 찾았지만 아무튼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다. 왜 심경에서 '부(不)'자를 반복하여 공을 설명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물리현상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다고 해도 물리는 상태로 나타나거나 죽은 상태로 나타난다. 삶과 죽음은 관찰하는 사람이 창조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50:50%의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그것만을 보고 자기가 본 것만이 전체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의 고양이는 거시적 세계의 존재이므로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을 수 없으니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비유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자 세계의 미시적 세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꼭 같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

상자열기전에 고양이 生死알수 없듯 알음알이로 따지기 이전 쉼으로 표현

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말을 일반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현대물리학의 기초를 다진 슈뢰딩거(Schrodinger)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는 것을 생각해 내었다.

심경처럼 우주전체를 생각할 것없이 슈뢰딩거는 상자 속에 고양이를 넣어두고 그 옆에 고양이 먹이를 먹으면 죽게 되는 독극물을 넣어둔 상황을 설정하였다. 벨을 누르면 독극물이 쏟아지고 고양이가 먹고 죽게 될 확률이 50% 죽지 않을 확률이 50%라면 벨을 누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고 관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벨을 누른 후 상자를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은 뻔하지만 벨을 누른 후 상자를 열어보지 않을 때 상자가 죽은 고양이를 창조해서 부정을 거듭하는 대로 공을 설명한 것이다.

선승(禪僧)들은 "이것이이다"해도 틀렸다고 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틀렸다고 했는데 이중성이 자연의 본질인 상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선승들이 옳은 것을 알 수 있다. 선승들이 가리키는 것이나 반야심경이 설명하는 것은 같은 태도이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물리학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 국판판 256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000원
- 중보판: 국판판 352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500원

※ 법포시 하실 사임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일화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포시지,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한국동로타리)

-우학스님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기 목고...

이 시대 베스트셀러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인고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계

-중요인간의 책들-

-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수행 의식집)
-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성계·화엄경약찬개·예불둔·아미타경)
-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우학스님 (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상보호하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대주, 초,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主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공 고

한국불교의 균형있는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국대민안과 민족문화 중흥을 위해 아래의 한국불교 21개 종단이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 래

대한불교 원용종(총무원장:배일공)	대한불교 총화종(총무원장:전남정)
대한불교 삼론종(총무원장:혜 공)	대한불교 법상종(총무원장:정경석)
대한불교 총지종(총무원장:이범공)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최혜초)
대한불교 진언종(총무원장:송보인)	대한불교 조동종(총무원장:윤지명)
대한불교 대승종(총무원장:윤일오)	대한불교 법화종(총무원장:김대호)
한국불교 법화종(총무원장:김광태)	대한불교 여래종(총무원장:김범우)
대한불교 용화종(총무원장:이범덕)	일 불 선 교 종 (총무원장:현봉해)
천 화 불 교 (총무원장:이희수)	대한불교 일승종(총무원장:김혜정)
대한불교 열반종(총무원장:김혜근)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전운덕)
대한불교 법륜종(총무원장:이혜우)	대한불교 원효종(총무원장:송무진)
대한불교 진각종(총무원장:김광해)	

(이상은 무순입니다)

불기 2540년 7월 일

대한불교 종단 진흥회

회 장 원용종 총무원장 배일공
사무총장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